

응골찬 휴식 마디, 석모도

-본부 추계 야유회

이제 태양은 서쪽 바다로 저물어 간다. 점점이
떠 있는 섬들이 붉게 물든다. 그건 멀어져 가는
빛이다. 흘러가는 세월을 향한 마지막 정열. 그
순간, 과거도 미래도 퇴색하고 현재만이 빛을 받
한다.

노을 지는 낙가산에 오르다

여기는, 보문사 본전에서 420여개의 가파른 계
단을 올라 온 간이 전망대. 꼭 사람 눈썹 같이
생겼다 하여 이름 붙여진 눈썹바위 바로 아래이
다. 고개 들어 보면 지방유형문화재 29호인 높이
9.7 m의 마애석불좌상(관음상)이 바위에 딱 붙
어 내려다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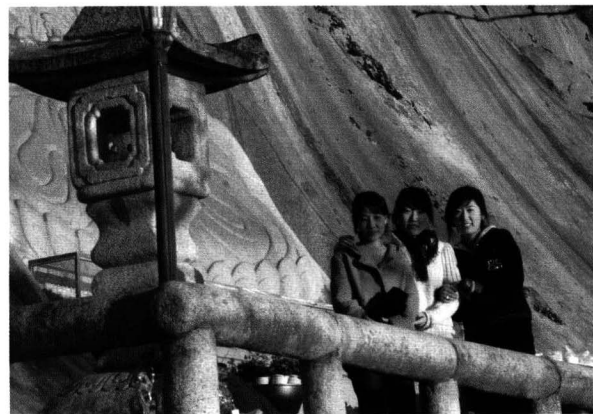
5시 20분, 다소 쌀쌀한 날씨로 인해 낙가산을
올랐던 대부분의 직원들은 내려가고 20여명이
웅기증기 모여 붉게 물드는 해거름을 바라보고
있다. 바다를 보면 언제나 수평선 위 파란 하늘
도 보인다. 그래서 바다에 오면 하늘냄새와 바닷
냄새가 난다. 핸드폰이 해풍에 떨 듯 쩐다. 빨갛
내려오란다. 해 다 쫓다고.

석모도로 출발

오전 근무를 마치고 석모도를 향해 출발, 언제
나 바다로 향하는 ㅁ로는 늘 약간 들뜬다. 2시간
여를 달려서 강화도 외포리 선착장에 도착. 함께
출발한 일행을 기다리던 차가워진 선착장을 들

러본다. 황해에서 흘러드는 황토색 바닷물 위로
배는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갈매기무리가 긴 포
물선을 그리며 날고 있다. 차 한잔 마실 시간이
지날 즈음 70여명의 본부 직원 식구들이 다 모
였다.

이제 카페리를 타고 1.5 km 바닷길을 건너 석



1. 석모도로 가는 1.5 km 바닷길, 배를 따라 오는 갈매기
를 향해 새우깡을 던지고 있다.
2. 높이 9.7 m의 마애석불좌상 발아래에서 김혜진, 유순미,
김지아 직원이 엄화미소를 보내고 있다.

①
②



3. 보문사 본전에서 눈썹바위까지 가는 계단길 중간에 섰다. (변재수 직원, 윤봉식 직원, 최수현 과장)
4. 해는 점점이 떠있는 바다를 향해 붉게 떨어진다. 그 찬란한 붉음을 배경으로 '지금'을 남긴다.
(송미호 과장, 윤규수 부장, 김진희 직원, 강은주 대리)
5. 한마을혈액원의 장기 순서. 서로서로 어우러져 한바탕 흥겨운 난장을 만들고 있다.
6. 노을을 닮은 얼굴로 어깨동무하듯 즐겁게 노래 부르고 있는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식구들

③	④
⑤	⑥

모도 석포리 선착장으로 건너가면 된다. 석모도 행 배에 오르자 갈매기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갈매기를 향해 새우깡을 던진다. 갈매기는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멋지게 날아서 새우깡을 짹짹 씹어먹는다. 10분 남짓 가는 동안, 새우깡 한 봉지를 쏟아내고 바라 본 비행 갈매기(?)의 묘기에 심취해 도심을 벗어난 직원들은 매운 바람에도 불구하고 연신 웃음을 터뜨렸다. 잠시 후 석포리 선착장에 도착, 한국의 3대 관음성지로 이름난 보문사에 올라 약수 한 사발 마시고, 낙가산 눈썹바위에 올라 아쉬운 듯 얼굴 붉히는 석모도의 석양을 가슴에 아로 새기고 하루 밤을 지새울 한가라지 농원으로 차를 몰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정은 깊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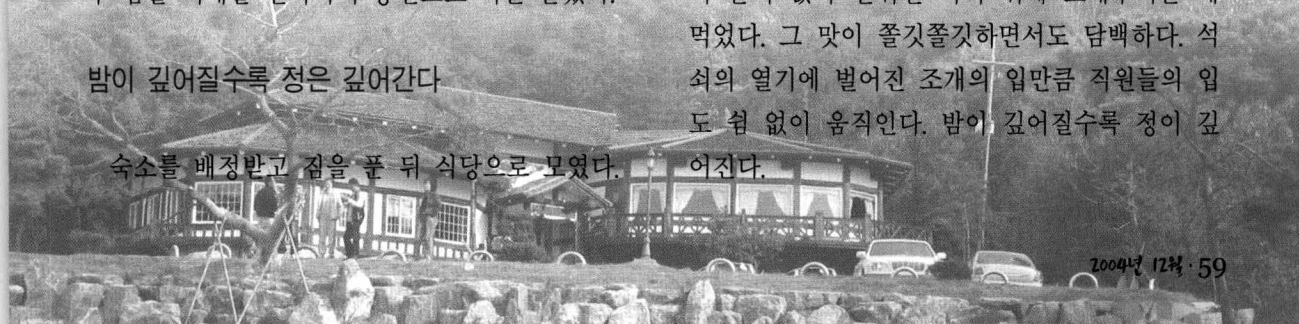
숙소를 배정받고 짐을 풀 뒤 식당으로 모였다.

3열종대로 나란히 도열해 있는 식탁에 70여명의 직원이 앉으니 바로 분위기 완성, 술잔을 높이 들고 건배를 외치니 바로 분위기 UP!

바깥 기온이 내려가는 만큼 내부 기온은 술기운으로 점점 올라가 정점으로 치닫는 시점에서 자리를 노래방으로 옮겨 부서벌 장기자랑이 이어졌다.

노래와 춤과 합창이 한데 어울려져 어깨동무하듯 한바탕 난장을 벌여지고 노을을 닮은 얼굴들은 이야기와 웃음으로 서로서로 엮혀진다.

그 열기는 밤이 깊어질 쯤, 불에 달궈진 석쇠 위로 이어졌다. 해풍이 불어오는 마당에 옹기종기 둘러 앉아 달궈진 석쇠 위에 조개구이를 해먹었다. 그 맛이 쫄깃쫄깃하면서도 담백하다. 석쇠의 열기에 벌어진 조개의 입만큼 직원들의 입도 쉽 없이 움직인다. 밤이 깊어질수록 정이 깊어진다.



족구와 피구, 체육행사

아침, 아픈 속을 해장국으로 달래고 체육행사를 가졌다. 본부 인원을 층별로 4개조로 편성하고 1세트 15점 방식으로 3판 2승제로 족구와 시간제한 5분, 3판2승제로 피구를 하였다. 승리의 관건은 숙취의 정도. 그러나 예상과는 반대로 족구는 팽팽했다. 1층 혈액원과 3층 3국(건강진단국, 환경위생국, 보건지원국)이 맞붙은 족구 결승, 1:1 상황에서 마지막 세트는 5번의 듀스 끝에 3층의 승리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휴식은 대나무의 마디와 같다. 마디가 있어야 대나무가 성장하듯 사람도 협회도 쉬어야 강하고 곧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옹골찬 마디를 채웠으니 다음 차례는 더 곧은 성장이다.

7. 한마음혈액원의 양발합동작전(?) 족구. 송중서 직원과 이기세 기사가 동시에 날리고 있다.
8. 예상과는 반대로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는 족구경기. 어젯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9. 한 번 던질 때 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피구. 힘차게 손질하고 있는 한천영 대리

